



여성 고객을 중심으로 한 '자기 몸 긍정주의'가 패션업계 아이콘으로 뜨고 있다. 내 몸을 획일화된 기준에 맞추기보다 내 스스로의 모습에 긍정하자는 게 핵심이다. 하지원이 모델로 등장하는 비비안 '헬로, 마이 핏' 캠페인. 사진제공 | 비비안

자기 몸 긍정주의...美의 고정관념을 깨다

비비안 '헬로, 마이 핏' 여성의 당당한 핏 강조
르까프 'W 바디쇼' 여성의 활기찬 라이프 응원



패션

자기 몸 긍정주의(Body positivity).

여성 고객을 중심으로 한 패션업계 아이콘이다. 과거에는 성 고정관념 속 여성스러움이나 마른 몸매가 강조됐다면 최근에는 내 몸을 획일화된 기준에 맞추기보다 스스로의 모습에 긍정하자는 게 핵심. 사회적으로 굳어진 획일적 '미'의 기준에 얽매었던 과거 여성들의 모습과 대조적 행보다.

비비안 '헬로, 마이 핏' 캠페인이 대표적. '여성의 당당한 자신감'이 주요 모토다. 추구해야 할 멋진 몸매라는 획일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여성들이 체형에 관계없이 이미 아름다움 핏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여성들이 불똥을 만들기 위해 몸에 맞지 않는 속옷을 입어 오히려 자신감이 낮아지고 불

함을 감수해 왔다는 점에서 착안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 그러면서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핏을 찾기 위해 '내 몸에 잘 맞는 제대로 된 속옷'을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하지원이 모델로 활약 중인데, 기존 속옷 모델의 색시 화보를 지양하는 것도 특이점이다. 회사 측은 "캠페인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기 몸 긍정주의'의 핵심은 여성의 당당함"이라며 "그 당당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안주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올 봄·여름 시즌 패션 트렌드로 자리잡은 '핏 시크(Fit Chic)'도 같은 맥락.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진강한 핏'을 나타내는 신조어로, '자기 몸 긍정주의'에서 파생돼 몸 라인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다. 뉴발란스가 '우먼즈 김연아 컬렉션'을 선보이며 예술레저룩을 선보인 것과 언더아머가 최근 서울 신사동에 여성 제품 전용 매장을 오픈한 게 그 예다. 운동을 통해 강한 체력을 갖게 되면서 여성 자신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

는 모습이다. 관련 이벤트는 덩이다. 르까프가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동문 야외광장에서 연 '2017 W 바디쇼'가 그것. '운도녀(운동화 신고 출근하는 도시 여성)'를 겨냥해 여성들의 활기찬 라이프를 응원하기 위한 도심 속 힐링 프로젝트이다. '필라테스 여신' 양정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도심 속 대규모 야외 피트니스 클래스가 펼쳐지는 이색 광경을 선보였다.

이렇듯 '자기 몸 긍정주의'는 자신의 몸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외모가 예쁘고 날 선해도 자신에게는 100%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성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무한한 애정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여성성과 다이어트, 마른 몸매 여성이 부각됐다면 이제는 스포츠 자체를 즐기고 정신적·신체적으로 강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고 있다"며 "남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강한 여성이 되고 싶어 운동하는 소비자가 많아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정욱 기자 jiyaj@donga.com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슈트데이' 코오롱FnC '캠브리지 멤버스'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사내 '슈트데이'를 연다.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직원 스스로 제품을 평가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캠브리지 멤버스' 사업부 직원들이 17일 코오롱FnC 본사에서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정욱 기자·사진제공 | 코오롱FnC

매경 브랜드 '루나' 성공한 리론칭 사례로 주목
매경 '루나'가 2030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며, 성공한 리론칭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3년 방판 전용 색조브랜드로 처음 출시됐으며, 이후 2006년 9월 메이크업 아티스트 브랜드로 리뉴얼 돼 TV홈쇼핑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2013년 6월 '20~30대 여성들이 빠르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콘셉트로, 드럭스토어와 온라인 유통채널로 변화를 시도했다. 지난 4년간 연평균 성장률 190%를 기록했으며, 특히 지난 1~4월 매출이 2015년 연간매출액을 뛰어넘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루나의 리론칭 성공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미지가 생명인 뷰티업계에서 리론칭의 성공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 매경 '루나' 측은 "향후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제품에 담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 디자인 협업이 큰 인기요인이었던 만큼, 올해도 '루나'만의 새로운 협업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인사

조달청 <승진>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 피플
(서기관) 이인호

부고

◇이기선 씨 별세·승곤 삼성디스플레이 부장 승진 승
아 씨 부친상·서민석 대진기업 대표=16일 삼성서울병

더페이스샵, '제14회 서울환경영화제' 공식 후원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이 '제14회 서울환경영화제'를 공식 후원, 24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제품 구매 영수증 지참 고객에게 영화교환권을 증정한다. '서울환경영화제'는 24일까지 이화여대 EOC 아트하우스 등에서 열리며, 약 30개국 70여편의 환경영화인들의 출품작을 통해 글로벌 환경문제를 새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정정욱 기자

토니모리, '아이시 알로에 수딩 쿨러' 출시
토니모리가 '아이시 알로에 수딩 쿨러'를 내놨다. 편리한 분사형 타입으로, 알로에베라잎수 및 페퍼민트추출물이 함유돼 쿨링 및 수딩 효과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스마트 멀티 기능 제품이다. 또 일시적 피부 온도 저하 테스트에서 제품을 사용한 즉시 피부 온도가 9.8도 낮춰지는 쿨링 효과를 입증 받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정정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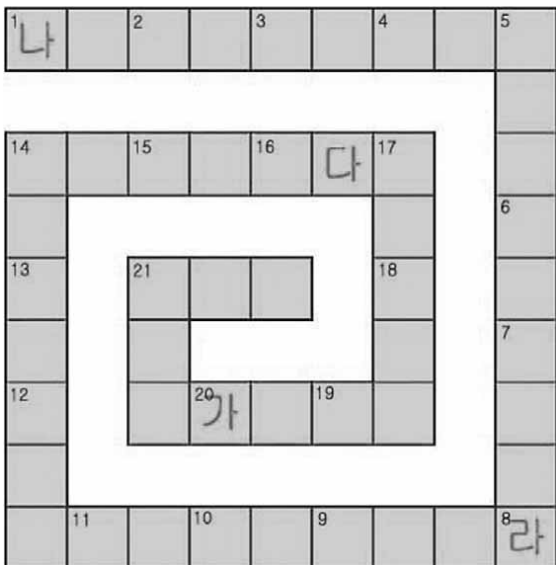
원, 발인 18일 오전 8시 02-3410-6905
◇이환준 씨 별세·동훈 씨(사업) 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법집서보호팀 차장 부친상=15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 02-2227-7594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경제 분야의 인사, 부고, 동정 소식을 이메일(jiyaj@donga.com)로 보내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강주현의 퍼즐월드

다음 문제의 열쇠를 잘 읽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어보세요



열쇠

1. 제각에 맞지 않아 거슬리거나 아니꼽다.
2. 여러 가지 쓰임새.
3. 도의 행정을 맡은 최고 책임자.
4. 우연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을 바라는 마음.
5. 깊이 잘 생각함.
6. 굳어져 변하지 않은 상태가 됨. '오착오'
7.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부드러운 기운이 넘쳐 흐름을 이르는 말
8. 매우 사랑하고 귀중히 여김
9. '남편'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10. 뜻밖의 긴급한 일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해서 마련해 둔 돈
11. 이제야 비로소 처음으로 들음.
12. 문의 양쪽에 세워 문짝을 끼워 달게 된 기둥.
13. 자동차를 세워 두도록 마련한 곳.
14. 어떠한 일을 찾아낸 바로 그 사람.
15.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일들.
16. 졸업생이나 동창생이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는 뜻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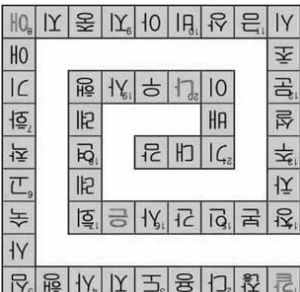
로 베푸는 연화나 다과회.

17. 설날이나 동짓날에 문무백관이 모여 임금에게 배례한 후 베풀던 연회. '오례오'
18.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
19. 판단도식 증기 목록.
20. 외모보다 실제로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얹잡아 이르는 말.
21.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심정.

퍼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가, 나, 다, 라 칸의 글자를 차례로 이어 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요 제목이 됩니다.



날씨와 생활 18일(목요일)

서울 0/0 14 27

인천 0/0 14 22

대전 0/0 12 28

청주 0/0 13 29

광주 0/0 13 29

전주 0/0 12 27

제주 0/0 14 23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날씨 최고기온℃

범례

춘천 10/0 12 28

강릉 10/0 17 28

울산 0/0 11 26

대구 0/0 13 29

부산 0/0 14 23

창원 0/0 13 26

부안 0/0 14 23

산 날씨

바다 날씨

미세 먼지

북한산 14/27	인천섬도 14/22	서울 38 보통
설악산 16/28	제주도 12/26	부산 52 보통
오대산 10/27	경포대 17/28	대구 46 보통
계룡산 11/28	속초 15/28	인천 45 보통
속리산 8/28	대전 11/24	광주 45 보통
소백산 12/27	안면도 꽃지 13/23	대전 32 보통
팔공산 13/29	변산반도 11/26	울산 68 보통
지리산 10/28	거문도 15/25	경기 46 보통
덕유산 8/27	철포 15/26	강원 37 보통
내장산 11/27	해운대 14/23	충북 40 보통
한라산 11/21	제주도 14/22	경남 44 보통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19일(금) 서울경기 15/27 88% 20/31 88% 14/29 88% 17/25 75% 15/24

20일(토) 서울경기 16/28 88% 19/28 88% 14/29 88% 15/29 88% 17/25 75% 17/24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5월 18일(목요일) 음력:4월 23일

 행운색: 흰색	오늘의 마음:썩네, 소심한 날. 운세: 안전한 생활에 젖어 물질적으로 파탄이 오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이다. 하지만 부패와 혼란의 시기는 동시에 혁신, 신생의 시대라 할 수 있다. 길방:서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소가 뱀을 만나는 날이다. 소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려는 기운이며, 뱀은 활동적이고 행동하는 기운이다. 학업, 연구,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길방:남
 행운색: 검정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자칫 망언이나 희롱이 될 수 있어 일단 커지게 된다. 길방:북
 행운색: 검정	오늘의 마음:여유배, 겨우 해결. 운세: 육구분출, 잠 재력발휘의 날이고, 건강과 금전에 대한 변동이 이루어진다. 계획과 판단력이 뛰어나 주변의 시선을 모으고 결과에 대한 과분한 응답을 얻는다. 길방:북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운기가 바뀌는 날이다. 그러나 개혁신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하라. 길방:남
 행운색: 청색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비교적 안정된 때임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길방:동
 행운색: 청색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 운세: 배가 돛을 높이 달고 물위를 달려 나아가는 기운이다. 대사업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걱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길방:동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 운세: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가능한 한 먼 거리가 좋다. 해외업무나 출장 등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는 업무가 좋다. 대폭적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길방:남
 행운색: 검정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문서상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길방:북
 행운색: 노랑	오늘의 마음:노을, 허무하다. 운세: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기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큰 것은 바라지 말라. 오늘은 파견근무의 기운이다. 근무의 결과가 좋아 진급과 연결된다. 길방:중앙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여 음식물을 씹어서 육신을 기른다. 그러나 병이나 화 또한 입을 통해 들어온다. 구설수나 소화불량에 주의하라. 길방:남
 행운색: 흰색	오늘의 마음:해·반개, 갈등. 운세: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날이다. 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날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길방:서
 재운코너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1,3,6,8,(2,4) 금일복권, 주식, 부동산매입 행운의 띠: 호랑이, 말, 개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토끼, 양, 돼지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영연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부 02 2020 1032
스포츠1부 02 2020 1041
스포츠2부 02 2020 1059
편집국장 연재호
광고국장 이승욱
인쇄 동아일보사

02 2020 1065
02 2020 1062
02 2020 1027
02 2020 1069
02 2020 1040
sol@donga.com

www.sportsdonga.com
(우)03187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